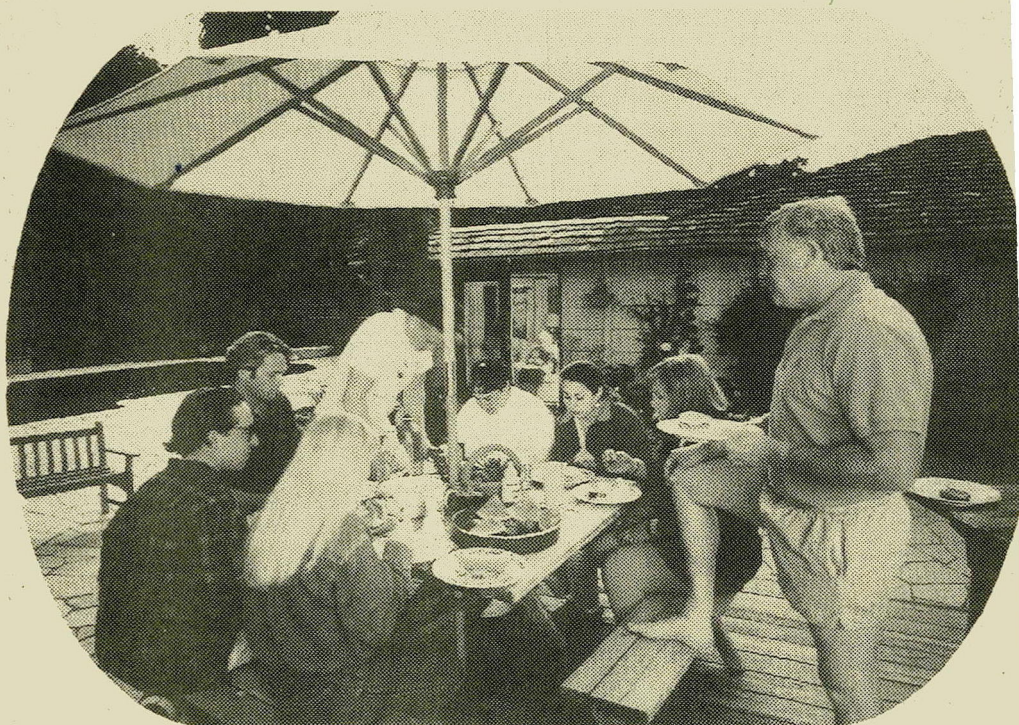


93.8.119



요즘 미국에서는 가정을 꾸려 부모곁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늘어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美가정 「돌아온 성인자녀」 골치

40%이상 한번이상 귀향...부모에 경제-정신적 부담

지금 미국의 부모들은 성인이 돼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골치를 썩고있다.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대 미국 미혼남녀의 51%가 부모 슬하에서 살고있으며 집을 떠난 자녀들의 40%가 한번이상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을 가리켜 「부메랑 키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책방 진열대

는 사실에 있다.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을 돕고 싶지만 자기들의 생활에 변화가 오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꺼리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사인 팔리스 잭슨 스티걸은 경제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정이 새로운 상황에 무리없이 적응할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숙식문제. 91년 인디애나대학을 졸업한 피트 롬바도는 기업체의 경영훈련과

자립해서 생활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전화 사용도 불화의 원인이 될수 있다.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조셉 리는 부메랑키즈를 늘 데리고있다. 리 부부에게는 이들 밑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 더 있다. 리 가족은 누가 캘리포니아에 30분이나 전화통화를 했는가하는 문제로 최근 큰 싸움을 겪었다. 리는 아이들에게 각각 전화요금 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각자 지불하도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부모는 전화통화가 잦고 수다스런 자녀들에게 전화선을 따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 초기부터 아예 공동생활의 시한과 휴면, 늦은 밤의 방문객접대등 생활의 원칙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일시적인 귀향이 자칫 부모에의 영원한 의존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식비용 전화사용 「不和요인」되기도

에는 「돌아온 성인자녀와 더불어 사는 법」이란 책도 선 보이고 있다. 인구통계학자 마르타 판스워드 리치는 『가정이 빈둥지가 되는것은 자녀나이 18세가 아니라 24세 때』라는 새로운 주장을 편다.

자녀들이 잠시 집에 돌아와 있는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적잖은 부모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녀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

정을 마칠때까지 회사 가까이 있는 부모집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다. 피트의 결정에 대해 그의 어머니는 「방세정도는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모자는 월세 1백50달러로 합의했다. 그는 때때로 하는 외식이나 자기류의 식료품비용을 지불하며 힘든 집안일을 돕기도 한다. 피트의 가족처럼 생활비분담에 대해 애초에 합의를 보는것이 중요하다. 금액은 자녀가 얼마나 벌며